

<http://dx.doi.org/10.17703/JCCT.2018.4.4.107>

JCCT 2018-11-13

발달장애학생 여가활동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천과제 : 평생계획 관점에서 학교-지역사회 연계

Practical Tasks to Secure Accessibility to Leisure Activity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 Focusing on school-community connection in the perspective of lifelong planning

최선경*

Sun kyoung Choi*

요약 전환기의 발달장애학생이 여가활동 교과과정을 통해 스스로 여가를 찾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 여가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의 교과과정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으로서의 여가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의 여가활동 인식이 전제가 되며, 지역사회 기반의 여가활동 참여시 언급되는 개선점과 중요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은 기존 요소에서 여가활동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발달장애학생의 여가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여가활동과 지역사회여가활동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가활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 : 발달장애, 여가활동, 평생계획, 교사의 인식, 지역사회

Abstract It is needed to connect the curriculum of leisure use with community resources in order to allow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in a transition period to recover composure themselves through the curriculum of leisure use, improve their skills to enjoy, and apply their independent ability to utilize the actual leisure resources in a community through community programs. To realize this, it is necessary to secure recognition of leisure use from teachers instructing leisure use as a curriculum and examine points to be improved and importance mentioned about community-based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The latest research on lifelong planning extends leisure activity from existing elements and implies the necessity of preparation in holistic aspects. As the crucial resources of leisure activity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is author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leisure activities in schools and in communities and provides supportive measures to elevate accessibility to leisure activity.

Key words :Developmental disability, leisure use, lifelong planning, teacher's recognition, community

*정회원,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접수일: 2018년 8월 13일, 수정완료일: 2018년 9월 12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8일

Received: August 13, 2018 / Revised: September 12, 2018
Accepted: September 28, 2018
*Corresponding Author: sun@silla.ac.kr
School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Korea

1. 서 론

201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은 49.3%,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이 50.7%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이 만족스럽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이 부족, 그리고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문화 활동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며[1],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여가생활을 비롯한 사회활동참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는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용이하지 않다는 결과이다. 장애인 중 96.6% 이상이 여가활동이 TV시청라고 응답한 부분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2].

장애 유형 중에서도 특히 중증 장애에 속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여가활동이 주는 의미는 삶 전반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특히, 성인사회로의 자립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전환기 시점의 발달장애학생의 경우 여가활동이 주는 의미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3]. 동시에 부모로부터 자립심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4],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교육적 함의를 갖고 있다[5]. 또한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학습상황과는 달리 여가활동을 통해서 쉽게 또래집단과의 동일시와 사회로의 통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어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6].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법에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직업재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환경개선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발달장애인의 여가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성은 발달장애인 관련 복지현장에서 전반적 동의를 얻고 있다.

이러한 동의는 발달장애인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현장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에서는 「2011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정」에 선택교과로 ‘여가활동’ 교과를 신설하였다. 이는 장애의 특성상 교육과정 내에서 여가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여가활동’교과의 신설은 여가가 단순히 개인의 만족도를 넘어 교육차원에서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7].

이어, 2015년 개정된 기본교육과정에 따르면 ‘다양한

정보를 통해 자신의 여가를 스스로 계획 및 선택하고, 개인-가족-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하는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여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초·중·고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신설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8].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지되어야 할 것은 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은 어느 한 시점이 아닌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삶의 질의 문제이며, 평생계획 차원의 접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학 시 여가활동의 교과과정과, 졸업 후 학교 밖 여가활동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8 9월 12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협력된 범정부 차원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9]. 주요골자는 생애주기별로 발달단계에 적합한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여가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청·장년기에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해 소그룹별로 실시하되 각 개인에게 적합한 학습형·체육형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한다는 정부의 대책발표는 결국, 발달장애인의 부모와 당사자의 삶의 질과 관련이 되며, 맞춤형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자원을 근간으로 하는 주간활동 서비스의 연계 방법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역사회자원 활용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다양한 여가활동 시설과 여건이 확충되어야 함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사안이다[10],[11].

[11]은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포함한 지역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여가 교육이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염두를 두고 여가교육 영역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가지 영역으로 다루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학교현장에서의 여가활동 교과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수준과 교육방법에 관한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있다[12],[13]. 학교 밖 여가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도 전환

기 시점에 있는 발달장애학생의 평생케어로서의 여가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보장, 의료보장 등의 비중이 큰 사안에 비해 적극적인 여가활동 지원모색이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2].

발달장애학생에게 학교의 여가활용 교과과정과 학교 밖 지역사회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한 이유는 학교 졸업 후 성인 사회로의 진입 시 여가가 주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이다[10],[14]. 201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22만6천명(지적 20만 1천명, 자폐성 2만 5천명)으로 연평균 3.6% 증가추세에 있으며 영유아를 제외하고 이중에서 집에만 머물고 있는 발달장애인 비율이 현재 26%로 집계되고 있다[2]. 전환기의 발달장애학생이 학교 재학 중에 여가활용 교과과정을 통해 스스로 여가를 찾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 여가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적용해 봄으로서, 졸업 후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교 재학 중의 여가활동 활용과 능력은 곧 성인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여가활용 능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사료 된다. 이는 평생계획에서 중요히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학생의 여가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학교 현장에서의 여가활동과 지역사회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여가활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첫째, 발달장애인 여가활동 관련 문헌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평생계획으로서의 발달장애학생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둘째 학교현장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고찰하며, 셋째, 지역사회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과 여가생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들은 20여 년간의 공교육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과 없이, 졸업 후 태어나 자랐던 원래의 집으로 되돌아간다. 결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의 남은 40-60년 삶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

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4]. 이는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돌봄부담경감 방안으로서의 평생계획 관점의 여가활동이 지원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인의 평생계획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부모 사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자녀의 주거와 후견인문제, 재정문제가 주요 관심이었다[15],[16],[17]. 이어 최근에는 주거, 재정 및 법적 계획 외에 결혼과 여가생활 영역이 포함되고 있다[18],[19-22].

평생계획의 핵심적인 요소는 주거, 재정, 법률적인 보호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여기에 직업이나 여가활동, 전반적인 생활방식에서의 선택 등을 추가하기도 한다[20] 여가생활을 평생계획의 영역 확장하는 이유는 총체적인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출발한다.

[4]는 발달장애인 부모 571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평생계획의 필요성 인식 및 준비 정도의 수준을 알아보고 평생계획의 필요성 및 준비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여러 요인 중에 여가 계획 요인만을 간추려 정리하면 첫째, 여가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급보다는 2급, 2급보다는 1급 장애자녀의 부모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둘째, 중복장애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여가계획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계획의 필요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달장애자녀가 중증이고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여가계획 역시 돌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4]은 이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이나 여가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아무래도 직업이나 주거 및 재정계획의 필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전환기의 발달장애학생의 여가활동이 평생계획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함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돌봄 부담과 관련된 부모의 삶의 질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평생계획은 장애자녀와 가족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의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자녀 혹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계획에 관한 정부의 시책이나 통계는 전무한 형편이었으며,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복지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17].

평생계획의 관점에서, 전환기의 발달장애학생이 여

가 활용 교과과정을 통해 스스로 여가를 찾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 여가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가활용의 교과과정과 학교 밖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으로서의 여가활용을 지도하는 교사의 여가활용 인식이 전제가 되며, 지역사회 기반의 여가활동 참여시 언급되는 개선점과 중요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기본 교과과정으로서의 ‘여가활용’에 관한 학교현장의 인식 검토

선택교과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 각각 개설된 ‘여가활용’은 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된다[10].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여가활용’교과에서는 여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여가활동을 탐색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여가에 필요한 태도와 기술, 정보 탐색 능력을 습득하여 생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

[12]는 기본교육과정의 선택교과인 여가 활용 교과과의 운영 실태와 특수교사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여가 활용 교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여가 활용 교과를 담당할 경험에 있는 교사의 수업 운영 실태, 여가 활용 교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수교사의 인식, 여가활용 교육과정 영역의 구체적 활동에 대한 필요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주목할 연구 결과는 첫째, 전체 응답자의 82.8%가 학교에서 여가 활용 교과를 선택교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교과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 의해 교과교육과 병행지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 교과를 선택교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지도와 일상생활지도가 우선시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용 교과를 선택교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장애학생들에게 ‘여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시되는 다른 교과나 내용이 지도되고 난 이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교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4]은 장애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이

후 지역사회에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여가를 배움으로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체험해 보고 여가교육을 통해 자신도 행복하게 여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둘째, 여가활용 교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로는 여가 활용 교과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활동의 선택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대로 여가활용 교과수업에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장애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른 개인차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 및 행·재정상의 제한된 여건을 이유로 지목하였다.

[13]은 특수교사의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여가 활용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선택교과에서 여가 활용 교과를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전국의 특수학교(급) 중등 과정의 특수교사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여가 활용 교과서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완벽히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하면서, 교사연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여가활용 교과서를 집필의 의도대로 보다 더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다양한 수준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보완자료의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예산의 충분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여가 활용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원 중 대부분이 레저스포츠, 취미 오락, 문화 예술, 관광 여행 등 직접 경험해 봐야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학교에서 책상에서만 여가에 대해 익히는 것이 아니라 여가의 개념을 익힌 후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야말로 장애학생들의 학교졸업 이후 유용한 여가생활을 영위하는 최선의 교육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의 행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3]는 특수학교 여가활용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검토한 결과, 여가활용 교육과정의 운영은 학교 및 학급 교육과정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었고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여가활용 교육 과정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에서 교사들은 통합지도를 가장 선호하였고, 여가활용 교육의 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요인으로는 편의시설 및 장소부족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여가활용 교육은 장애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24]은 '여가활용'교과 활용 방안에서 학교와 교사가 '여가활용'교과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가활용'교과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세 가지 차원에서 교과활용을 안내하였다. 첫째, 교사는 학생에게 여가 활동에 필요한 기초 지식이나 활동 방법을 안내하되, 특정 지식 및 기술의 습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하며 학생이 여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의사소통 및 자기결정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수동적인 학습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학생의 관심 과 흥미를 관찰하여 선택 가능한 여가 활동을 제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라 보완·대체 의사소통 기기, 정보화 기기,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지도하여야 하고, 특히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 운영 시에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교과를 지도해야 한다. 둘째, '여가 활용' 교과의 가정과의 연계 를 위하여 '여가 활용' 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교 내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정과의 연계 를 통해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여가 활용' 교과의 평가 결과를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하도록 재구성하고, 구체화 및 다양화된 안내방법을 통해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는 '여가 활용' 교과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시·청각 자료, 실습실, 시설, 설비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학생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교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용 교과과정이 학생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실제적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지도하는 교사의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중요하며, 행정적·재정적 제한, 편의시설·장소의 부족, 교사 연수 필요 등의 사항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2. 발달장애학생 지역사회 여가활동과 중요성 검토

지역사회에서의 여가활동을 규칙적으로 자주 참여하는 것은 연관성 생성을 돕고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유대감 발생과 우정발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25], [25]는 전환기 학생에게 그 자신의 흥미와 선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들 광범위한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또래친구 프로그램이 많은 실질적인 기능적 훈련내용도 중요하지만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간의 잠재적인 우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호 조장을 위해 상호관계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26]는 지적장애 학생의 운동발달 특성 및 수준에 맞게 고안된 축구활동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축구활동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축구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6]은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국내 여가활동 중재관련 실험연구 분석"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여가기술 및 활동을 중재한 국내연구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가장 높은 빈도로 활용된 여가 영역은 건강*스포츠 영역이었으며 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지적장애학생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여가기술을 학령전기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여가활동의 정보와 기회, 시설을 제공하고 개인의 성향과 흥미,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여가교수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장애학생의 여가생활을 위해 여가시설 구비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이루어져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6], [27] 역시 여가제약의 맥락에서 함께 하는 여가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자원의 부족, 짧은 기간의 여가참여, 선택의 폭이 좁은 획일적 여가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발달장애인은 본인의 흥미보다 부모나 교사 등 주변인의 추천에 의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이 아닌 타인에 의해 참여한 여가활동은 발달장애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여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이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여가제약을 극복하고 개인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여가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여가활동은 참여와 유지에 있어 자발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언급한 [28]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

에인의 여가제약을 논할 때 발달장애인은 여가의 기술이 부족하고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이지만[29], 수동적 여가를 적극적 여가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여가 기술과 능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만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들의 정서적 요인을 고려하여 생산적으로 여가활동에 관여하도록 유도되어야 함이 지적되고 있다[30].

새로운 플랫폼으로 커뮤니티 댄스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이유는 지적장애학생의 신체활동 방해요인으로 환경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는 [31]의 주장을 고려할 때 신체활동 수업의 실제에서 항상 여러 도구를 구비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교구가 구비된 곳에서만 프로그램을 시행 할 수 있다는 실행환경에 관한 현실적 한계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체활동 주요 실시기관이 복지관, 재활기관, 학교 체육으로 한정되는 경향[32]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 사용 기간의 한계, 경제적 어려움, 특정 나이대만의 참여, 지적장애 성인의 소외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업 실행의 문제점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에 관한 요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지적장애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플랫폼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25]는 전환기 지적장애 청소년의 오락, 여가 및 건강생활은 결과중심 전환교육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의 건강하고 충만한 성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락과 여가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적장애학생들의 건강 지원 증진 전략은 실질적 지역사회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진 역동적인 과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행동적, 사회적, 환경적, 영성적인 과정이 혼합된 것이어야 하고 다방면으로 운동과 신체활동의 증진, 적절한 식사, 건강한 생활방식, 스트레스 관리전략, 상호지원 체계관계, 지역사회 및 사회적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25]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참여 실태 및 지원요구에 대해 알아보게 하였다. 평생교육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주목할 점은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길 희망하였다. 자신의 주거환경 인근장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역 내 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교적 발달장애인이 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제공 기관의 수와 제공 프로그램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많은 학생들이 제한 적이고 편협적인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거주 지역, 문화 인프라, 정보의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III. 결론: 발달장애학생 여가활동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실천과제 : 학교-지역사회 연계

전환기의 발달장애학생이 여가활용 교과과정을 통해 스스로 여가를 찾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지역사회 여가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가활용의 교과과정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결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과정으로서의 여가활용을 지도하는 교사의 여가활용 인식이 전제가 되며, 지역사회 기반의 여가활동 참여시 언급되는 개선점과 중요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와 교사가 ‘여가활용’교과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가활용’교과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발달장애인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둘째, 여가활용’교과의 가정과의 연계를 위하여 ‘여가활용’교과에서 학습한 내용을 학교 내에서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지역사회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여가활용’교과의 평가를 구체적이고 쉽게 이해하도록 재구성하고, 구체화 및

다양화된 안내방법을 통해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셋째,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사와 함께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는 발달장애학생의 여가생활에 관한 전환계획(transitional plan)이나 평생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수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될 경우 여가생활에 관한 평생계획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 세미나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팀 접근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가생활에 관한 평생계획을 보다 체계적인 지침과 종합적인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앞서 [33]의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부모나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여가교육 이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성 높은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현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 현존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 교과과정으로서의 여가활용은 자기의 소질을 찾고 적성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에도 복지관, 문화센터, 평생교육기관의 여가활동 프로그램과 연계 될 수 있도록 학교 여가활용과 교과과정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전략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행정지원 지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 H. Kang,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Health and Welfare Forum, Vol. 153, pp. 25-36, 2009.
- [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2017), Surve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isabled.
- [3] M. S. Lee, “The Basic Study on Program Development of Modular Leisure Education Based on the Daily Living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Education Innovation Research, Vol. 28, No. 2, 25-44, 2018.
- [4] D. Y. Kim, “ A study on Permanency Planning of People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6, No, 2, pp. 121-147, 2015.
- [5] B. S. Hwang, “ The Effects of a Peer-Buddy Program on Perception to Social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with Disabilities during Leisure Activiti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1, No. 1, pp. 147-169, 2012.
- [6] K. H. Jung, J. Y. Kim, “ Trend and Issues in Experimental Research of Leisure Skill and Activity Intervention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 15, No.3, pp.317-336, 2013.
- [7]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Special school curriculum, Notice 2011-501.
- [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5), Basic curriculum, Notice 2015-81.
- [9] <http://www.yonhapnews.co.kr>
- [10] S. Y. Kim, S. H. Park, “ Elements of Play Programs for Promoting Social Inclusion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al Need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2 No.2 , pp.35-56, 2003.
- [11] H. K. Im, D. H. Kim,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n the Extra Activities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Educational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Vol, 44, pp.97-116, 2004.
- [12] H. J. Koh, M. S. Lee. “The Perception and Improvement Plan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toward the Subject of Leisure Utilization in the Basic Curriculum.”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 19, No. 2, pp.77-97, 2017.
- [13] W. Y. Won, “teachers with the special education leisure use textbook.”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8, No. 2, pp.177-198, 2015.
- [14] J. S. Lee, “The effect of experienced discrimination and self stigma o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7, No.1, pp. 277-299.
- [15] I. S. Goh, “A study on Permanency Planning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or Developmental Disabilities by Parents.”

- Department of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16] B. N. NA, "A Study of Permanency Planning for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Its Related Factor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6.
- [17] S. M. Kyung, "A study on Permanency Planning for Adult with the Ment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43, pp.106-130, 2000.
- [18] D.Y.Kim, W. H. Park, "Lifelong Education Program Open Orientation Degree Analysis in Korea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14, no.4, pp.1-25, 2013.
- [19] G.E.Kim, "The Establishment of Permanency Planning of Elderly Mother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28, pp.39-63, 2011.
- [20] M. Y. Cho, "A study on Permanency Planning of People for Intellectually Disabled People." Department of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9.
- [21] W.N. Lee, K.S.Kim "A study on Permanency Planning of Parents for Adul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9, No. 1, pp. 53-78.
- [22] H.Y.Kim, C. W. Kang, D.Y.Go, " A study of the Life-Pla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Hwasunf City."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6, No. 3, pp.221-247, 2011
- [23] J. S. Choi, S. J. Lee, J.Y.Son, "The Verification of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PerManency Plan, and Child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0, No.4, pp.41-71, 2009.
- [24] M. K. Lee, J. K. Park, H. R. kim, "The Status of Management and Perception of Teachers on Leisure Studies Curricula in Special Education School,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Vol.55, No.1, pp. 45-68, 2012.
- [25] I. S. Cho, " The Prompt Strategies for Improving Recreation, Leisure, Healthy Life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ransition Period."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 16, No. 1, pp. 129-148, 2014.
- [26] M. K. Song, H. K. Roh, " The Effect of Soccer Activity on Sociality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 12, No. 3, pp. 129-148, 2014.
- [27] S.H.Kim, " The research about mental retarded students and their family's leisure states and its barrie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4.
- [28] S. H. Son, S. M. Kim, " The Study on Play Club Leisure Experience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 129 No. 1, pp. 155-184, 2017.
- [29]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 Collaboration Foundation (2011), Researching needs and establishing Policies for development disabled people.
- [30] Y.S. Kang, "Identifying the Barriers and Facilitators to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Vol, 13, No.12, pp.99-113, 2015.
- [31] Y. H. Lee, H.J.Joung, " The Effects of Community Dance on Mother Ability in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 A pilot Stud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 34. No.4, pp. 1-17, 2001
- [32] J. H. Jong, D. M. Kim, G. R. JO, Y. H. Lee, " Exploring process of adherence to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amo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focus group study of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Vol. 24, No. 4, pp. 133-149, 2016.
- [33] J. M. Park, J. H. Kim, S. L. Hong, H. Y. Lee, K. O. Park, " Participation and support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Vol. 11, No. 1, pp. 147-169, 2012.